



2021

가을 기획전

격동의 시대, 다시 만난 오얏꽃

일러두기

본 도록에 실린 유물 중에서 소장처가 없는 경우 윤원영 소장임을 밝혀둡니다.

2021 가을 기획전

격동의
시대
다시 만난
오 앙꽃



2021.10.15 – 2022.01.22

경기여고 경운박물관

오얏꽃이 피었습니다



장경수 | 경운박물관장

2021년 가을도 변함없이 푸른 하늘, 아름다운 구름, 청명한 날씨가 우리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사태는 지루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운박물관은 대한제국 시기에 관련된 두 번의 전시를 한 바 있고 이번에도 그 시기를 전후한 격동의 시기의 황실과 왕실의 생활상을 들여다보는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대한제국 전후의 국내외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황실과 왕실의 생활은 엄격한 전통의 바탕 위에 외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포용적인 생활상이었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그 시절에 가장 처절한 사건인 을미사변(1895)으로 우리는 국모를 잃었고, 그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아픔으로 마음 깊이 남아 있습니다. 경운박물관은 이번 전시에서 한산이씨 충간공 이현직, 충숙공 이경직 형제가 관직에 있을 때 사용한 사명기와 수기를 최초로 보여줍니다. 동생 이경직은 을미사변 당시 명성황후 앞에서 일제에 항거하다가 일본 낭인의 칼에 순직한 궁내부 대신이었습니다.

2022년은 한미 수교 14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여 미국인 의료 선교사이며 우리나라와 미국의 근대 외교사에 중요한 인물인 알렌(安連, H. N. Allen)을 조명합니다. 1904년 고종황제가 알렌에게 수여한 훈공일등 태극대수장(등록문화재 제651호)과 명성황후의 조카인 민영익이 자신을 치료해 준 알렌에게 선물한 용문상아 단도는 당시 황실과의 유대와 한미 정치외교에 크게 기여한 인물의 내력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흥선대원군의 유품인 오얏꽃이 확인한 옥필과 석란 병풍, 운현궁에서 사용했던 유희기구 등을 보여줍니다.

광복 이후 황실의 마지막 거처였던 창덕궁 낙선재에서 여생을 보내신 영친왕비가 사용했던 은제품 등 생활용품을 보여드립니다. 황실가문은 그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모든 생활용품에 오얏꽃李花 문양을 또렷이 새겨 놓았습니다. 황실의 생활용품 이외에 덕혜옹주와 영친왕비의 복식 유물(국가민속문화재 제265호)도 전시합니다.

이번 전시는 근대 공예품의 역사에 한층 더 접근하고, 대한제국 황실의 전통 공예품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며, 고난과 슬픔의 시간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났던 선조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전시에 귀중한 유물들을 대여해 준 국립고궁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연세의대 동은의학 박물관, 여주시 명성황후기념관과 특히 많은 유물을 대여해 주신 윤월영 회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개인 소장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목 차 contents

인사말

장경수 | 경운박물관장

I 경복궁

- 명성황후
- 사명기
- 호러스 알렌

II 운현궁

- 흥선대원군 병풍과 옥필
- 생활집기

III 낙선재

- 영친왕비
- 은집기
- 칠보

2

8

12

24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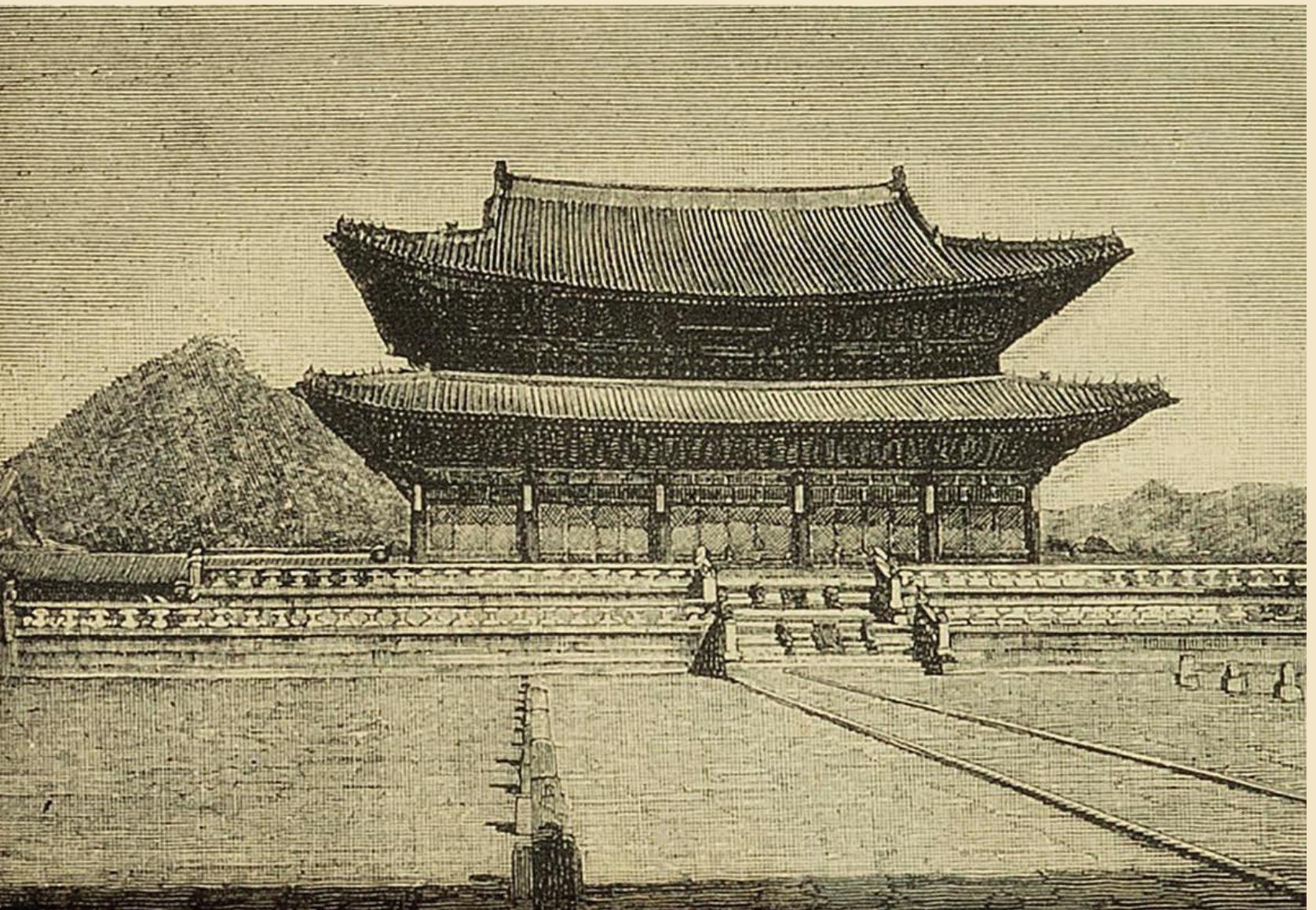
46

52

70

100

경복궁 景福宮



경복궁을 소개한 프랑스 주간지

1894년 8월 12일자

경복궁은 조선 왕조 제일의 법궁이다. 북으로 북악산을 기대어 자리 잡았고 정문인 광화문 앞으로는 넓은 육조거리(지금의 세종로)가 펼쳐져, 왕도인 한양(서울) 도시 계획의 중심이기도 하다. 1395년 태조 이성계가 창건하였고, 1592년 임진왜란으로 불타 없어졌다 가. 고종 때인 1867년 중건되었다. 흥선대원군이 주도한 중건 경복궁은 500여 동의 건물들이 미로같이 빼곡히 들어선 웅장한 모습이었다.

궁궐 안에는 왕과 관리들의 정무 시설, 왕족들의 생활 공간, 휴식을 위한 후원 공간이 조성되었다. 또한 왕비의 중궁, 세자의 동궁, 고종이 만든 건청궁 등 궁궐 안에 다시 여러 작은 궁들이 복잡하게 모인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에 거의 대부분의 건물들을 철거하여 근정전 등 극히 일부 중심 건물만 남았고, 조선 총독부 청사를 지어 궁궐 자체를 가려버렸다. 다행히 1990년부터 본격적인 복원 사업이 추진되어 총독부 건물을 철거하고 흥례문 일원을 복원하였으며, 왕과 왕비의 침전, 동궁, 건청궁, 태원전 일원의 모습을 되찾고 있다.

문화재청 자료 제공

명성황후 明成皇后(1851~1895)



고종황제를 소개한 프랑스 주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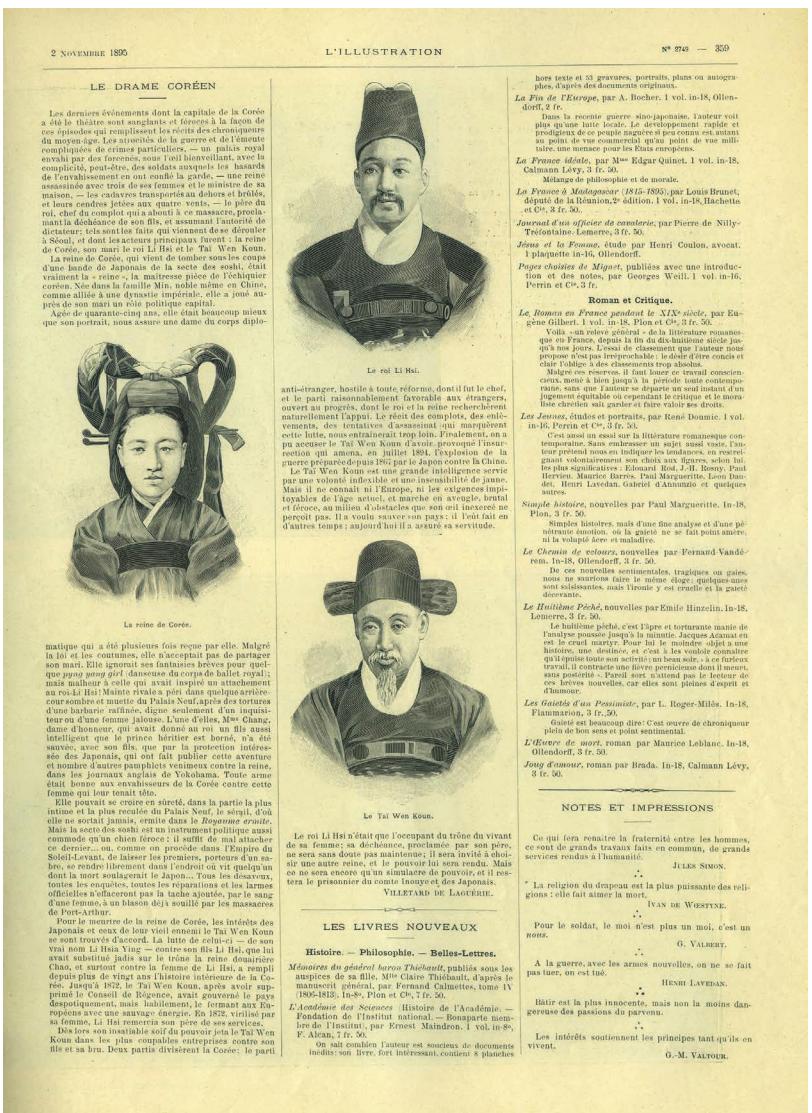
La Vie Illustrée (French Weekly Newspaper)

1904년 1월 29일자 | 종이

가로 28.2cm 세로 36.3cm

이돈수 소장

조셉 드 라 네지에르(Joseph de la Neziere)가 1903년 서울에서 그린 초상화로 1904년 1월 29일자 라 비 일류스트레(La Vie Illustrée) 신문에 실렸다.



을미사면 당시 조선의 왕(고종)과 왕비, 흥선대원군을 소개한 프랑스 주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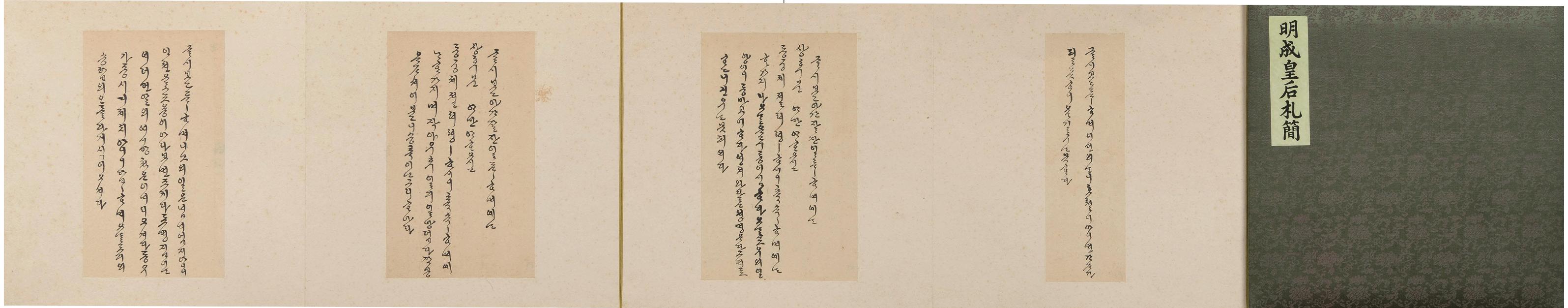
L'Illustration (French Weekly Newspaper)

1895년 11월 2일자 | 종이

가로 30cm 세로 40.5cm

이돈수 소장

“왕비를 여러 번 접견하였다는 한 외교관 부인에 의하면 45세의 왕비는 초상화보다 더 아름다웠다고 한다. 최근 조선의 수도는 마치 중세 연대기 작가의 이야기에나 나올 법한 참혹하고 잔인한 사건의 현장이다. 사체는 궁 밖에서 태워지고 재는 사방으로 뿌려졌다.”



명성황후 간찰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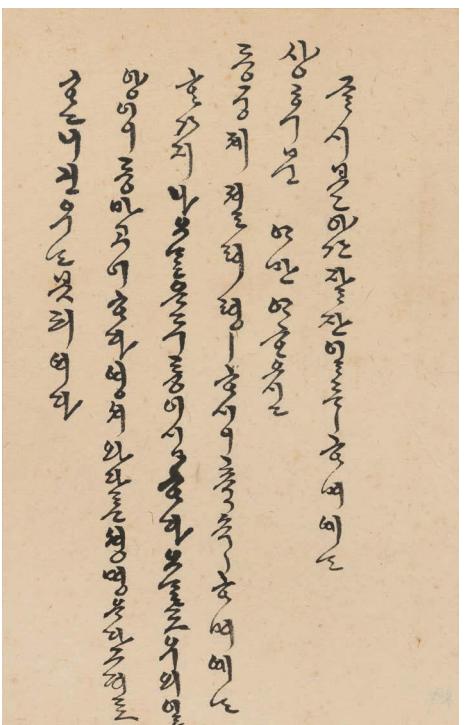
Collection of Letters Written by Empress Myeongseong

조선 1888-1895 | 종이에 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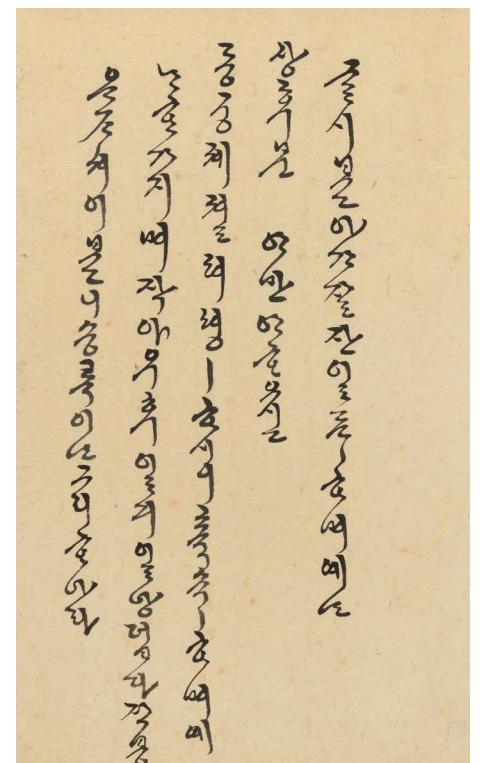
가로 32.7cm 세로 32.7cm

여주시 명성황후기념관 소장

명성황후의 친필 국문 편지를 담은 서첩으로 총 16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황후가 친밀하게 지냈던 조선 말 병조판서를 지낸 민씨세력의 실력자이며 조카인 민영소(閔泳韶, 1852~1917)에게 보내진 것이다. 이 서간들은 개인적 안부에서부터 가족과 인척, 정치적 문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글씨 보고 밤사이에 잘 잠 일 든든하며, 여기는 임금의 문안이 아주 평안하시고, 동궁의 정황도 매우 편안하시니 (앞으로도 편안하기를) 축수하며, 여기는 한결 같으나 오늘은 두통이 심하다. 오늘도 비울 기미는 똑같으니 겨울 장마가 괴이하다. 영서 淵序와 다른 이름은 다 그대로 하고 이전우는 못 되었다.



글씨 보고 밤사이에 잘 잠 일 든든하며, 여기는 임금의 문안이 아주 평안하시고, 동궁의 정황도 매우 편안하시니 (앞으로도 편안하기를) 축수하며, 여기는 한결 같으며, 어젯밤에 비가 온 뒤에도 일기는 똑같이 덥다. 적은 편지는 자세히 보고 이승록 李承祿이 는 그리 하여라.

사명기 司命旗



수기 手旗를 들고 있는 관리 모습



외아문 外衙門의 관리들(보스턴미술관 소장)

*외아문: 구한말에 외교와 통상 사무를 관장하던 관아

사명기

청색 운보문단과 도류불수단 바탕에 관직을 표시하는 두꺼운 글씨를 오려서 바탕과 동일한 현색 옷감으로 감싸서 붙였다. 영두와 장목, 주락은 없어졌으나 미대는 완벽하게 남아있어 제식에 맞게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미대는 바탕과 같은 오방색 문단으로 5매씩 25장이다. 황금색을 중심으로 왼쪽에서부터 현·백·황·청·훈의 순서이다.

사명기 위쪽에는 장목에 묶었던 2개의 붉은색 끈이 달려있다. 오방의 색깔은 전체적 퇴색되어 사명기마다 색의 차이를 보인다.

수기

손에 드는 작은 사명기로 청색 운보문단 바탕에 현색 글씨를 붙였다. 미대 대신 위쪽에 첨식을 세 군데에서 징궈 주었다. 첨식은 훈·청·황·백색 매죽포도문단을 잇고 현색의 끝은 고초기와 같이 제비꼬리 모양으로 갈라지게 만들었다. 오른쪽에는 깃대에 묶었던 붉은색 명주 끈이 달려있다.

한산 韓山 이씨 일가의 사명기

1895년 10월 8일(음력 8월 20일)에 일본은 ‘여우사냥’이라는 작전명 아래 경복궁 건청궁 내 곤녕합 崇寧閣 옥호루 玉壺樓에서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 乙未事變을 일으켰다. 당시 희생자 중 시위대 연대장이었던 홍계훈 洪啓薰 외에도 명성황후 앞에서 일제에 항거하다 일본 낭인의 칼에 두 팔이 잘려 순직한 궁내부대신宮內府大臣 이경직 李耕植이 있었다.

충숙공 忠肅公 이경직은 1891년부터 충청·전라·경기도 관찰사 觀察使와 관리사 管理使가 겸임하는 개성부 유수 留守 등을 역임하다 1895년 궁내부대신으로 부임하였으며, 두 달이 못 되어 일제에 의해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였다. 궁내부 특진관을 역임했던 이경직의 형인 충간공 忠簡公 이현직 李憲植은 고종황제가 강제 퇴위를 당한 해인 1907년 사망하였다.

김영중(52회) 동문이 외가에서 유물로 내려오던 사명기와 수기를 2021년 4월 경운박물관에 기증했다. 충간공 이현직이 친정 어머니의 고조부가 되신다.

이현직(兄)

(李憲植, 1839 ~ 1907. 4. 24)

이경직(弟)

(李耕植, 1841 ~ 1895. 8. 20)

- 1883 개성부 유수
- 1885 수원부 유수
- 1887 전라도관찰사
- 1889 충청도관찰사
- 1890 경기도관찰사
- 1895 궁내부 특진관

- 1885 문과 급제
- 1891 충청도관찰사
- 1892 전라도관찰사
- 1893.3. 경기도관찰사
- 1893.11. 개성부 유수
- 1895.6. 궁내부대신

총리제군사명수기

District Commander's Banner

19세기 | 운보문단, 문단, 명주

가로 62cm 세로 70.3cm

경운박물관 소장

1885년부터 1887년까지 수원부水原府 유수留守로 재임하던 충간공 이현직이 사용했던 수기이다. 수원부 유수가 총리사總理使를 겸임하였다.

수기 위쪽의 첨식은 훈·청·황·백색 매죽포도문단을 잇고 끝에는 현색 제비꼬리 모양을 이었다. 가장자리는 흠질로 마무리하여 수기에 3군데 징귀 주었다. 오른쪽에는 깃대에 묶었던 3개의 붉은색 명주 끈이 완벽하게 남아 있다.



총리제군사명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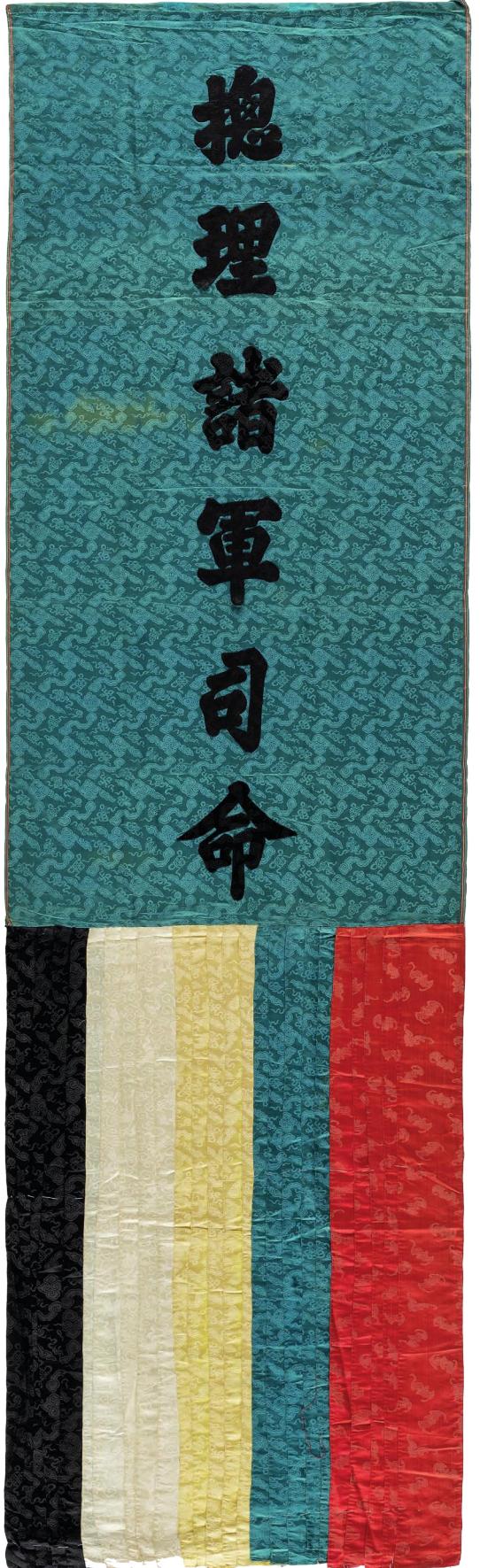
District Commander's Banner

19세기 | 운보문단, 문단, 문주

가로 76cm 세로 260cm

경운박물관 소장

1885년부터 1887년까지 수원부水原府 유수留守로 재임하던 충간공 이현직이 사용했던 사명기이다. 장목에 묶었던 2개의 붉은색 문주 끈이 유실되었으며 미대 25장 중 훈색의 마지막 대 1장은 박쥐문단으로 만들어졌다. 미대의 25장의 흐트러짐을 고려하여 위사 방향으로 흠질로 징귀 주었다.





관리제군사명수기

District Commander's Banner

19세기 | 운보문단, 문단, 명주

가로 72.5cm 세로 69.3cm

경운박물관 소장

개성부 開城府 유수留守가 겸임하는 관리사管理使가 사용했던 수기이다.

첨식은 흰·청·황·백색 매죽포도문단을 잇고 현색의 끝은 고초기와 같이 제비꼬리 모양으로 갈라지게 만들었다. 가장자리는 흠질로 마무리하였다. 오른쪽에는 깃대에 묶었던 2개의 붉은색 명주 끈이 달려있다.

관리제군사명기

District Commander's Banner

19세기 | 운보문단, 문주

가로 77cm 세로 263cm

경운박물관 소장

개성부 유수가 겸임하는 관리사가 사용했던 사명기이다. 미대 현·백·황·청·훈 25장과 장목에 묶었던 두 개의 명주 끈은 모두 완벽하게 남아있다. 바탕 청색 운보문단은 흰색과 분홍 줄을 넣어 짠 식서를 그대로 온폭을 사용하였고 미대의 가장자리는 흠질로 마무리하였다. 미대의 25장의 흐트러짐을 고려하여 위사 방향으로 흠질로 징궈 주었다.





호남제군사명기

District Commander's Bann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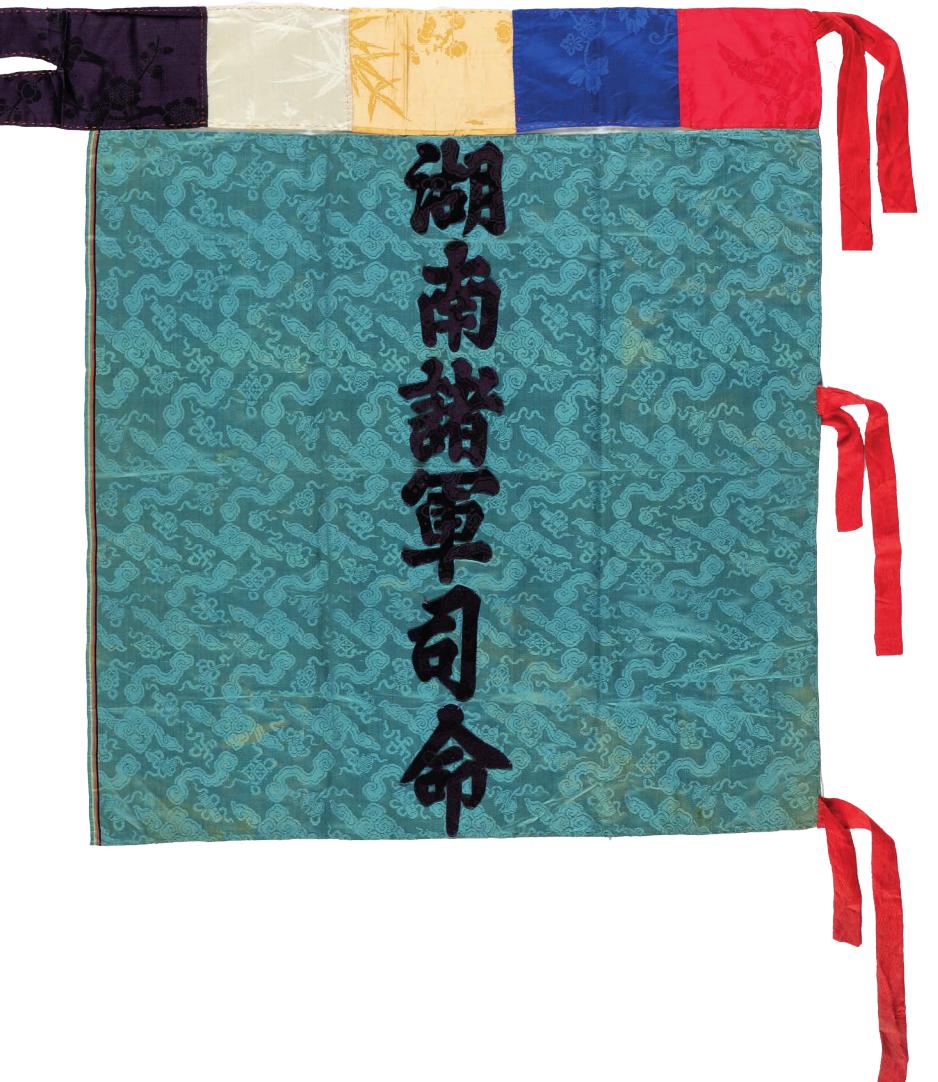
19세기 | 운보문단, 문단, 문주

가로 75.5cm 세로 261cm

경운박물관 소장

전라도관찰사가 사용했던 사명기이다.

미대 훈색 5장 중 4장은 유실되고 마지막 1장만 남아 있고 운보문단 대신 오 호로보문단을 사용하였다. 청색 대는 3장만 남아 너비를 맞추어 보수한 흔적으로 보인다. 윗부분에 훼손된 부분과 붉은색 끈의 이염된 부분이 있으며 부분적으로 오염되고 전체적으로 퇴색 되었다.



호남제군사명수기

District Commander's Banner

19세기 | 운보문단, 문단, 명주

가로 62cm 세로 71.5cm

경운박물관 소장

전라도관찰사가 사용했던 수기이다.

수기 위쪽의 첨식은 훈·청·황·백색 매죽포도문단을 잇고 끝에는 현색 제비꼬리형으로 갈라진 모양을 잇고 가장자리는 흠질로 마무리하여 수기에 3군데 징궈 주었다. 오른쪽에는 깃대에 묶었던 3개의 붉은색 명주 끈이 달려있다.



호서제군사명수기

District Commander's Banner

19세기 | 문단, 명주

가로 62cm 세로 71.3cm

경운박물관 소장

충청도관찰사가 사용했던 수기이다.

첨식은 오방색을 이어 가장자리는 흠질로 마무리하였고 현색은 제비꼬리 모양으로 끝이 갈라져 있으며 길이가 좀 길다. 오른쪽에는 깃대에 묶었던 3개의 붉은색 명주 끈이 달려있다.

호서제군사명기

District Commander's Banner

19세기 | 운보문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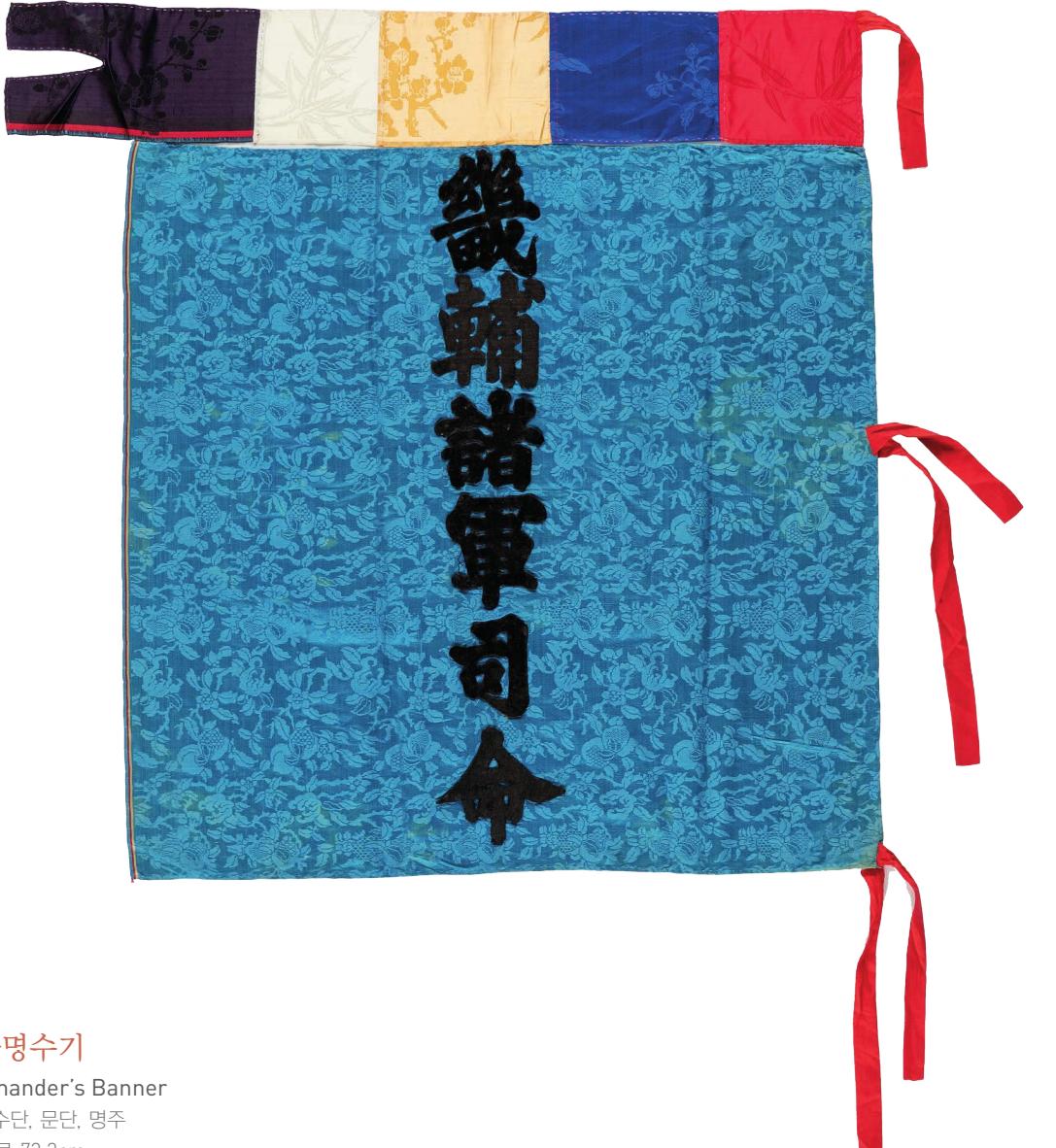
가로 77cm 세로 267cm

경운박물관 소장

충청도관찰사가 사용했던 사명기이다.

장목에 묶었던 붉은색 2개의 끈이 유실되었고 미대는 완벽하게 남아있다. 청색 미대 중 하나는 식서를 그대로 사용하여 흰색과 홍색 선이 보인다. 미대의 25장의 흐트러짐을 고려하여 위사 방향으로 흠질로 징궈주었다.





기보제군사명수기

District Commander's Banner

19세기 | 도류불수단, 문단, 명주

가로 63.5cm 세로 73.3cm

경운박물관 소장

경기도관찰사가 사용했던 수기이다.

수기 위쪽의 첨식은 훈·청·황·백색 매죽포도문단을 잇고 끝에는 현색 제비꼬리 모양을 이었다. 가장자리는 흠질로 마무리하여 수기에 3군데 징귀 주었다. 현색 문단은 홍색과 초록선을 넣어 짠 식서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오른쪽에는 깃대에 묶었던 3개의 붉은색 명주 끈이 달려있다.

기보제군사명기

District Commander's Banner

19세기 | 도류불수단, 문주

가로 77.3cm 세로 254cm

경운박물관 소장

경기도관찰사가 사용했던 사명기이다.

장목에 묶었던 붉은색 문주 끈 하나가 유실되었다. 바탕부분의 청색 운보문단은 흰색과 홍색 줄을 넣어 짠 식서를 그대로 온폭을 사용하였고 미대의 가장자리는 흠질로 마무리하였다. 미대의 오방색은 전체적으로 퇴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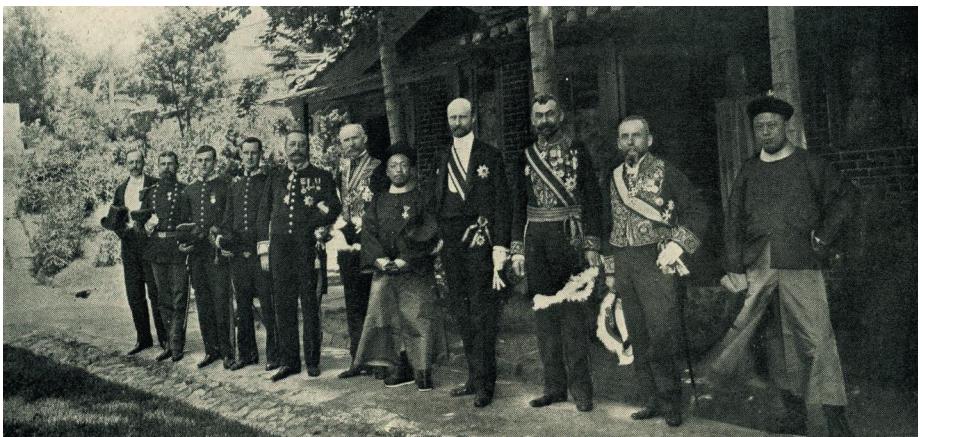
호러스 알렌(Horace Newton Allen, 1858~1932)



연세의대 동은의학박물관 제공

호러스 알伦은 1884년 의료 선교사로 조선에 입국하여 갑신정변으로 부상당한 민영익(명성황후의 조카)을 치료한 것을 계기로 고종과 명성황후의 신임을 얻어 왕실 주치의가 되었다. 알렌은 고종에게 병원 설립안을 제출하였고, 1885년 4월 한국 최초의 서양식 근대 병원인 제중원濟衆院이 설립되었다.

1887년 9월 알렌은 주미 조선공사관 고문, 주조선 미국공사관 서기관으로 발탁되고, 1901년 주한 미국 공사를 역임한다. 고종황제는 1904년 알렌에게 ‘훈공일등 태극대수장’을 수여하며 그의 업적을 치하하였다. 일본이 강제로 체결한 을사늑약으로 인해 1905년 6월 미국으로 귀국하게 된다.



정동 미국공사관에 모인 각국 공사 (우측 4번째 인물이 알렌, 태극대수장 착용)
연세의대 동은의학박물관 제공



알렌 수증 훈공일등 태극대수장

국가등록문화재 제651호

Medal of Honor Granted to Horace N. Allen for His Patriotic Service
National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No. 651

1904년 | 복합금속, 섬유

훈공일등 태극장(정장) 가로 7.5cm 세로 12cm

훈공이등 태극장(부장) 가로 9cm 세로 9cm

대수 너비 10.6cm 길이 159cm

연세의대 동은의학박물관 소장



1904년 고종황제가 수여한 훈공일등 태극대수장이다. 대수는 청홍색의 직조이며 정장에 해당하는 태극장 위쪽에 오얏꽃 문양이 있으며 아래쪽 꽃잎 뒷면에는 ‘훈공일등勳功一等’ 명문이 새겨져 있다. 부장의 뒷면에는 ‘훈공이등勳功貳等’ 명문이 2줄의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 훈장 중서는 알렌 유족이 보관하고 있다.



알렌의 검안경

국가등록문화재 제446호

Allen's Ophthalmoscope

National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No. 446

1880년대 | 상아, 나무, 금속 등

검안경 너비 4.2cm 길이 18cm

상자 가로 7cm 세로 10cm

연세의대 동은의학박물관 소장

알렌이 사용했던 눈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든 안과용 기구이다.

GALL&LEMBKE OPTICIANS사가 제작하였으며 1870년대 미국 뉴욕에서 개발되어 상용되었다.



민영익이 알렌에게 준 칼

Prince Min's Gift to Dr. Allen

1880년대 | 상아, 금속

총 길이 53.8cm 칼날길이 30cm

연세의대 동은의학박물관 소장

알렌이 갑신정변(1884) 때 자상을 입은 명성황후 조카 민영익閔泳翊을 치료해 주고 받은 용문상아龍紋象牙 단도이다. 칼의 손잡이는 흑요석 상감의 눈을 가진 용두龍頭이며, 칼집 표면에는 구름 속에서 노니는 4조룡 2마리가 조각되어 있다.

운현궁 雲峴宮



운현궁의 노안당 전경
문화재청 제공



운현궁은 흥선대원군이 살았던 집으로, 고종이 태어나서 왕위에 오를 때까지 자란 곳이기도 하다. 흥선대원군의 집과 1910년대 새로 지어 덕성여자대학 본관으로 사용하던 서양식 건물을 합쳐 사적으로 지정하였다.

한옥은 제일 앞 남쪽에 대원군의 사랑채인 노안당이 자리잡고, 뒤쪽인 북쪽으로 행랑채가 동서로 길게 뻗어있으며 북쪽에 안채인 노락당이 자리잡고 있다.

고종이 즉위하자 이곳에서 흥선대원군이 정치를 하였고, 궁궐과 직통으로 연결되었다.

지금은 궁의 일부가 덕성여자 대학으로 사용되고 있고 방송국 시설이 있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대원군이 즐겨 사용하던 아재당도 헐려 나가고 영화루와 은신군·남연군의 사당도 모두 없어졌다.

문화재청 자료 제공

홍선대원군 興宣大院君(1820~1898)



와룡관에 학창의를 갖추고 의자에 앉은 홍선대원군 좌상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조선 역사상 4명의 대원군 중 즉위한 왕의 살아있는 아버지로 유일한 이는 홍선대원군 이하옹이다. 순조의 아들 효명세자의 부인이었던 조대비의 조카 조성하와의 친교는 훗날 철종이 후사 없이 승하하자 둘째아들 명복이 왕위를 계승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어린 나이의 고종을 대신한 10년의 섭정 기간은 왕권의 강화와 대외적인 쇄국으로 대표된다.

정조 사후 왕위는 순조, 현종, 철종으로 이어지나 순조 비 순원왕후를 등에 업은 안동 김씨 문중의 세도정치가 그 위세를 떨치던 시기였다. 왕손들에 대한 끊임없는 견제 속에서 명을 부지하고 파락호라는 별호까지 감내하면서 은둔의 시절을 버텨냈다.

때로는 울적한 심정을 달래기 위해, 때로는 호구지책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난을 치던 홍선군의 난초 그림에는 그의 호를 따서 석파란石坡蘭이란 명칭까지 주어졌다. 힘과 문기文氣가 응축된 그의 묵란墨蘭에 대해 스승 김정희는 암록강 동쪽에 이보다 나은 작품은 없을 것이란 찬사를 보냈다.

영육과 권력의 부침 속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홍선대원군은 78세의 나이로 눈을 감고 사후 대원왕大院王으로 추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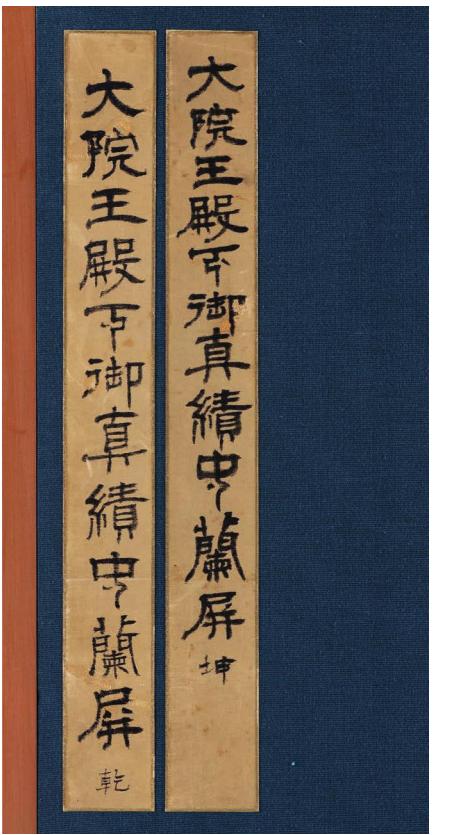
흥선대원군 석란도병풍

Folding Screen Painted by Heungseon Daewong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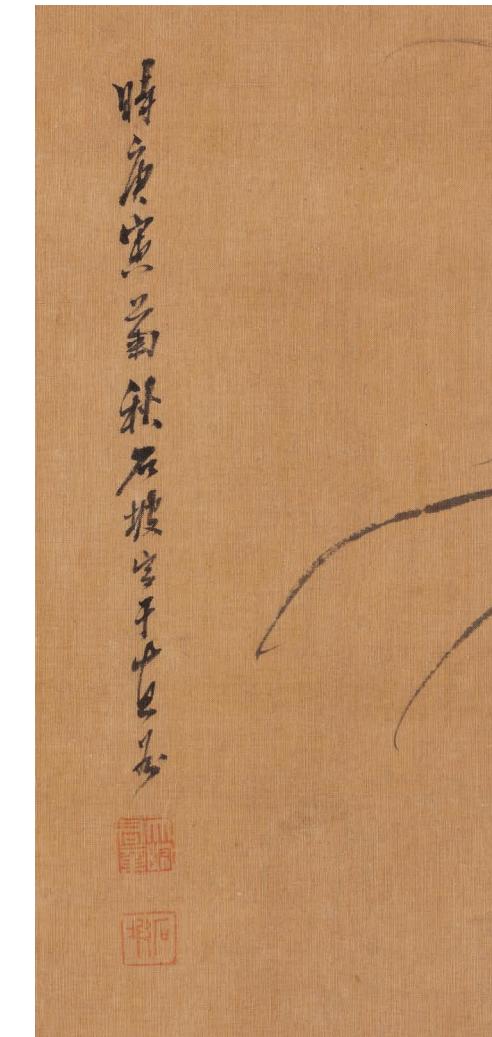
19세기 | 직물에 먹

병풍 각 폭 40.8cm 길이 185cm

개인소장



대원왕 전하 어진적중 난 병풍 전
대원왕 전하 어진적중 난 병풍 곤





운현궁백낙도병풍

Folding Screen

20세기 | 직물에 먹

병풍 각 폭 41cm 길이 182cm

비단에 채색 그림으로 수복강녕壽康寧 기원하는 십장생 주제가 여러 형태로
화려하게 펼쳐져 있다. 특이한 것은 불화佛畫에서 볼 수 있는 흑색 바탕에 금빛
안료로 그려진 작품이다.



운현궁 소장 백낙도 12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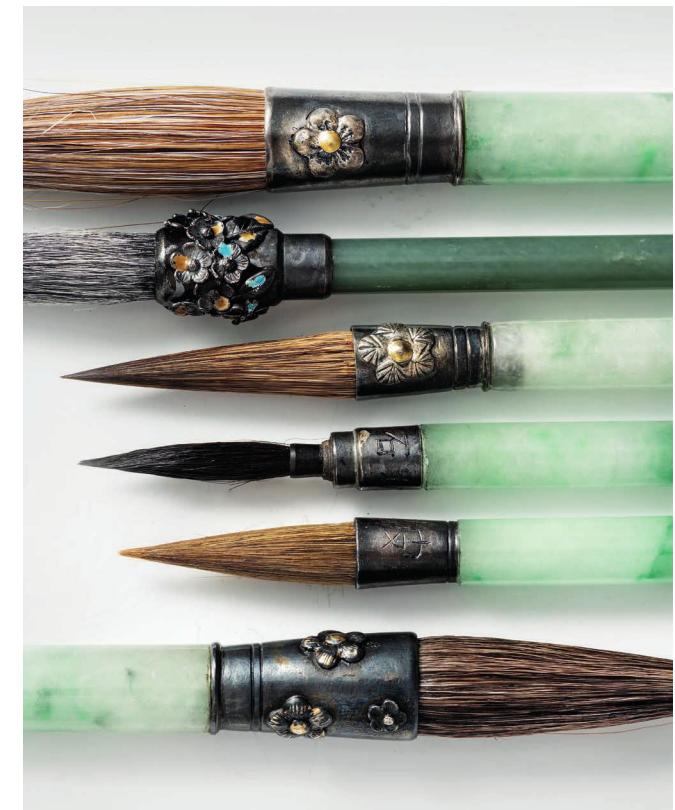
홍선대원군 옥필

Heungseon Daewongun's Jade Brushes

19세기 | 옥, 금속, 동물털

길이 17.6 ~ 45.5cm

옥필의 봇털과 옥붓대 연결부에 금속으로 오얏꽃을 장식하였으며 홍선대원군의 호인 '석파石坡'가 새겨져 있다.





화각붓

Brushes Decorated With Ox-horn
20세기 | 쇠뿔, 나무, 동물털
길이 좌 35.5cm 우 31cm



대모안경과 화각안경집

Turtle Shell Glasses and Case Decorated With Ox-horn
20세기 | 대모, 쇠뿔, 나무 등
안경 13.9cm 안경다리 15cm 안경집 너비 6.6cm 길이 17cm



화각안경집

Glasses Case Decorated With Ox-horn
20세기 | 쇠뿔, 나무 등
안경집 너비 6.3cm 길이 21cm



벼루집

Inkstone Case

19세기말-20세기초 | 나무

몸통 가로 11.5cm 세로 18.4cm 높이 2.5cm

뚜껑 가로 10.2cm 세로 17.5cm 높이 1.6cm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나무로 만든 벼루집으로 뚜껑에 ‘석정진장石庭珍藏’이라고 되어 있어서 흥선대원군의 장손인 이준용(李浚鎔, 1870~1917)이 사용하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벼루를 담는 몸체의 외관은 두 단으로 하고 네 귀에 ‘ㄴ’자형의 낮은 다리를 달았다. 모든 모서리는 완만하게 다듬어 둥글게 하였다.



필기구

Writing Tools

20세기 | 쇠뿔, 금속, 동물털

길이 14.5 ~ 25.5cm

생활집기



향합

Incense Box

20세기 초 | 금속

전체 높이 4.1cm 몸통 높이 3.2cm

뚜껑 높이 1.1cm 지름 6.2cm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향을 담았던 원통형 합이다. 몸체에는 아무 장식이 없고 뚜껑에만 중앙에 두 개의 가는 선으로 동심원을 둘렀다.



은제합

Silver box

20세기 초 | 금속

가로 6.9cm 세로 3.5cm 전체 높이 3cm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무늬가 없으며 장방형의 형태로 뒤에 경첩이 달려 있다.



은제주발

Enamel Silver Rice Bowl

19세기 말 | 금속

전체 높이 5.8cm 몸통 높이 4.8cm 입지름 8.8cm 바닥지름 7.7cm

뚜껑 높이 1.8cm 뚜껑 지름 9.3cm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뚜껑에는 중앙과 사방에 도안화된 '수壽'자문이 새겨져 있다. 글자는 푸른색과 흰색, 녹색, 황색의 칠보로 채색되어 있다.



은제주발

Enamel Silver Rice Bowl

19세기 말 | 금속

전체 높이 9cm 몸통 높이 5.4cm 입지름 10.6cm 바닥지름 6.3cm

뚜껑 높이 3.8cm 뚜껑 지름 11cm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칠보로 장식된 은제주발이다. 원형으로 도안된 '수壽'자가 뚜껑 경사면 네 곳과 정수리 부분에 장식되었다. 뚜껑의 중앙에 연꽃봉오리 형태의 꼭지가 달렸다.



마작패

Mah-jong Kit

20세기 | 골각, 가죽 등

상자 가로 20.4cm 세로 12.8cm 높이 11.5cm

내부상자 가로 18.0cm 세로 11.2cm 높이 1.8cm

마작패 가로 1.7cm 세로 1.4cm 높이 1.0cm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마작놀이를 하는데 필요한 기구 일괄이다. 벨벳으로 안감을 댄 가죽상자에 골각류로 만들어진 마작도구들이 층층이 들어 있다. 마작은 중국에서 시작된 놀이로 조선에서는 갑오개혁(1894)을 전후하여 외국을 내왕하던 인사들에 의해 보급되었다.



윷

Four Sticks for Korean Game, Yut

20세기 | 나무

너비 1.6cm 길이 14.2cm 두께 1.1cm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은제윷말

Silver Pieces for Yut

20세기 | 금속

지름 1.9cm ~ 2.5cm 두께 0.7cm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윷놀이를 할 때 사용하던 윷과 윷말로 4개씩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다. 4개의 윷말은 박쥐형 · 나비형 · 화형 · 오얏꽃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은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형태의 윷말은 화려했던 왕실 생활의 일면을 엿볼 수 있게 해주며 당시 왕실의 놀이문화를 보여준다.